전남교육청, 조직개편 통해 학교지원센터 구축 완성

22개 지원청 전면 확대 앞두고 업무 매뉴얼 화상 연수

학교 업무 줄이기 위해 고심중…다양한 방법 적용 고심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사업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면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시범 구축한 10곳에 더해 나머지 12곳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 구축을 완성한다.

도교육청은 △도시형 4청(목포, 여수, 순천, 광양) △도농복합형 4청(나주, 무안, 화순, 영암) △농촌형 7청(고흥, 해남, 담양, 보성, 영광, 장성, 완도) △도서벽지형 7청(곡성, 진도,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신안) 등으로 분류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업무 연수 및 화상연수 등 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를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등 업무 매뉴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학교지원센터를 향한 교육가족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교육하고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조기안착을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 운영한 나주, 무안, 해남 지역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사전 준비사항 등을 소개하고 센터 주요업무처리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기존 10개 학교지원센터와 신설되는 12개 센터가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 초기 드러나는 문제점과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한편, 학교 지원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학교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상연수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이번 연수는 학교지원센터 추진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관리,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처리가 대폭 개선돼 학교현장에 대한 밀착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보성, 상반기 퇴직 공무직원 초청 간담회

내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직원들 기획협의실로 초청

보성교육청은 지난 26일 기획협의실에서 29일에 정년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 급식종사원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온 교육공무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공무직원(복내초 조리사 이달막 외 4명)은 바르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던 지나온 삶에 대한 소회와 퇴직 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남근 교육장은 "그동안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퇴직하신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보성 지역의 교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전남교육청, 역사 속에서 배우는 '남도민주평화길' 개발

22개 시·군 독립·평화·민주주의 유적 체험학습 콘텐츠로 엮어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유적들을 발굴해 현장체험학습용 자료로 엮은 '남도민주평화길'을 개발했다.

'남도민주평화길'은 학생들이 지역별, 권역별, 주제별로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해 민족의 독립과 평화, 민주의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됐다.

도교육청은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지난 해부터 1년 동안 역사학계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개발 및 집필진을 구성해 동학농민혁명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관련 사료와 유적 등을 발굴했다.

발굴 대상은 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이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 11명의 검토를 받아 완성했다.

개발진들은 기존의 자료와 방치됐던 자료들을 찾아내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공식자료와 대조하는 등 엄격하게 고증하고, 지역 문화원과 사학자,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인물들을재조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2개 시군별 '지역을 빛낸 인물' 편과 '독립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로 나누어 현장체험학습 콘텐츠를 엮어냈다. 자료 말미에는 하루 답사 코스를 소개해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별로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는 코너'도 마련해 학생들이 단순 답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정리하도록 했다.

나주·영암 지역의 경우, 정석진 나주의병과 양방매 영암의병 등 17명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한 후, 금성관에서 시작해 남고문광장 - 남산공원 김태원의병장 가족비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나주역사 · 궁삼면농민항쟁기념비 · 영암3·1운동기념비-낭산 김준연기념관-용서와 화해의 위령탑 순으로 민주평화 테마길을 배치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관계자는 "각급학교에서 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남도 곳곳에 숨어있는 민주·평화·인권 관련 역사의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느끼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남도 민주평화길'을 오는 3월 초 배부할 예정이다.

허성은 기자

나주교육청, 코로나-19 대응 활동 강화

나주교육청이 신학기를 앞두고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방역소독은 학교 별로 일정을 조율해 실시하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학교 교사동 뿐 아니라 기숙사 내부까지 구석구석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가 닿는 책상, 문, 손잡이, 난간, 교육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매일 학교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발령에 따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와 나주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 출입문 한 곳만 개방하고 출입자 명단 관리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나주시보건소와 협조해 학교에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안에서라도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교육청Wee센터, 위기학생지원 MOU

영광교육청 Wee센터는 지난 26일 영광교육청Wee센터와 전남해바라기센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위기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